

현행법 대하듯... 무주 경찰관들, 주민과 실랑이

강압적 태도 · 반말 일관... 주민들 "서장의 주민 소통 의지와 정반대"

"신고가 들어 왔다. 주민번호를 대라" 무작정 들이닥쳐 반말로 압박 지르는 경찰들의 행태에 주민들과의 실랑이가 오갔다.

지난 14일 무주읍 관내 모 사무실에 지역 주민 7~8명이 모여 차 한 잔에 이야기를 갖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동석인들이 이날 지역 이야기 등을 나누며 차를 마시던 탁자 위에 '화투판이 있다'라는 오해에서 시작됐다.

그 자리에 있던 A씨(62·무주읍)는 "물론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대로 경찰이 전주 사정을 제대로 숙지한 후 처리해도 늦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찰들은 "카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그 자리에 있던 또다른 B씨(60·적상면)가 "아니, 보시다시피 이것은 회의탁자 아니다. 그냥 차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답변 했지만 경찰관은 다짜고짜 강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일관했다.

더욱이 주계파출소 모 경관은 이곳 동석인들을 현행법 다루듯 반말 섞인 어투로 나와 주민들의 마음상한 불같은 감정에 기름을 퍼붓기에 충분했다.

옛 숙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다.

B씨는 또 "막무가내 들어와 반말로 위협하는 듯한 경찰의 자세는 지금 사대의 경찰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다라는 말처럼 경찰들의 공손한 언행이었다면 이곳에 모였던 주민들 또한 차분하게 응대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모였던 주민들은 대부분 60세 언저리 나이의 지역주민들로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현행법 대하듯 반말하는 경찰들의 막가파식 태도와 말투에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냐"며 혀를 찼다.

이들은 "이와 달리 무주 경찰서장은 취임 이후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힘

을 쏟고 있다 역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자자한데 출동한 경찰관의 이같은 행태는 서장의 주민 소통 의지와는 정반대의 행동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미지에 틀에 박힌 직원들의 권위의식으로 또다른 주민을 대할 때 지속성관이 쌓은 성과에 누가 되거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비스 홍보행정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부터 바로 잡아나갈 때 정의 구현의 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사회는 변화를 거둬들이며 혁신의 발전에 속도가 붙는 반면 경찰의 민원인을 대하는 말투는 아직도 구시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빨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민여론도 광배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안심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전 점검 추진

전주시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10개소 대상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오는 12월 9일까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전주지역 의료기관 10개소를 대상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안전 점검은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 면회객 등의 이동이 많아 화재 및 인파 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주지역 10개 의료기관으로, 완산구 소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시설규격 준수여부 △안전관리 일반사항 △환자 대피 대책 △정전사태 대비 △대처 방법 교육 훈련 △소방분야 등 총 7개 분야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통제선 설치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정밀안전진단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과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 겨울철 단축 운영 나선다

겨울철을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단축 운영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월드컵골프장 12월부터 티오프 타임을 오전 4시 41분에서 오전 7시로 늦추고 티업 타임도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 33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유로는 추운 날씨에 따른 아침과

저녁에 골프장 이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클럽하우스 개보수공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8월로, 이때까지 탈의실과 샤워실 이용이 제한된다.

/김영태 기자

월드컵골프장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 9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이용료도 저렴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계현 월드컵운영부장은 "겨울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6대 특화산업 성과 · 우수사례 공유

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3회 이(異)업종 포럼 · 성과공유회 가져

강한 경제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한 전주시가 탄소와 식품, 공예품 등 전주시 6대 특화산업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특화분야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이(異)업종 간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제3회 이(異)업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15일 라투체 블랙라벨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주시의 6대 특화분야인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화장품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 중 희망기업 26개사를 선정해 제품제작, 생산성 향상, 산업간 융합, 특허·인증·시험·평가 등을 지원하는 '전주형 특화분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의 성과와 실적을 함께 공유하고, 이(異)업종

간 상호 교류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다.

특히 탄소분야의 '덕진신소재'와 기계·자동차분야의 '삼일산업'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화재 예방 모니터링 기능의 투명 벨트 컨베이어 커버', 전기·전자분야의 '엘파워닉스'와 식품분야의 '한국오가니'이 협업으로 개발한 '식물 성장을 위한 광량 조절형 LED 조명' 등 이(異)업종 기업 간 협업의 성과물도 공유돼 의미를 더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26개 참여업체 중 고용 우수업체인 '에이파워(주)(전기·전자부품 분야)', 매출 우수업체인 '덕진 신소재(탄소분야)'가 각각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에이파워(주)는 특허·인증·시험·평가 지원을 통해 전라북도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에 선정됐으며,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덕진 신소재는 특허·인증·시험·평가 지원과 산업 간 융합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약 10배 증가했다.

시는 올해 전주형 특화분야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전주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異)업종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용 창출과 매출액 상승 등 기업성장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선 8기에는 특히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공사 현장 용접 · 절단 작업 시 불티 화재 주의 당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진수)는 건조한 날씨 공장 등에서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내 용접·용단 등 관련 화재는 총 85건(사망 1명, 부상 7명, 재산피해 41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현장의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쉽게 화재로 발생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소화·피난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접·용단 화재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 시 화재감지사 배치, 작업 주변 가연



전주완산소방서는 건조한 날씨 공장 등에서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 제거,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작업 중 유독가스 지속적 검사, 용접가스 실린

더·전기동력원 등은 외부에 배치, 관리자 작업자 간 비상연락 수단 확보 등이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겨울철 재난 대비 사전 점검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와 함께 통영대전선 육십령터널에서 장수분기점까지 7km구간에서 폭설 및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을 15일 진행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설 특보는 203회로, 최근 10년 평균 172회 대비 18% 상회하는 등 대설특보 발령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겨울철 기후변화의 일상화 및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전체 관할구간 241.1km 중 터널 53개소 39km, 교량 230개 48km 등 터널·교량 구간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 폭설·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

다.

이에 관내 폭설·결빙 위험구간 13개소를 지정하고 한국도로공사 각 지사 상환설 및 제설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장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위험 구간별 긴급상황 발생 시 우회도로 지정 및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브레이크 후미등, 타이어 파손' 등 '정비불량, 안전거리 미확보' 영상단속, 명승지 일대 음주 단속을 집중 실시해 교통사고 요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